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프로야구 600만 관중 … '돈바람' 분다

올 590만 흥행 열풍에 내년 중계권료 200억원 넘길 듯

KIA 새구장 건립 등 기업 잇단 투자에 전성시대 예고

프로스포츠 흥행의 중심지 프로야구에 '돈바람'이 불고 있다.

올 시즌 최다관중 기록을 갈아치운 프로야구가 흥행 열풍에 힘입어 중계권료 인상, 기업들의 잇단 투자 분위기로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2010년 프로야구는 이른 개막과 월드컵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592만8626명의 관중을 유치하며 역대 최다관중 기록을 갈아치웠다. 관중증가와 함께 입장 수익만 412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338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흥행 열기는 중계권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중 6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프로야구 중계권료도 대폭 올라 사상 처음으로 200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로야구가 흥행 대박을 이어가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굴지의 게임전문 회사 엔씨소프트가 프로야구 노른자위인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신생팀 창단에 뛰어들면서 9구단 탄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승효과'를 등에 업은 전국구 구단 KIA 타이거즈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KIA는 지난해 극적인 한국시리즈를 장식하며 1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 우승을 계기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KIA는 올 시즌 함평 전용연습구장 건립과 신구장 건립이라는 두 가지 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했다.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간 KIA의 함평 전용 연습구장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1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 전용 연습구장에는 주경기장, 내야 연습장, 실내 연습장과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의 숙소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KIA는 지난 15일 광주시와 야구장 건립 위·수탁 협약식을 열면서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전용구장을 건립한 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기아자동차가 새 구장 건립에 300억원을 내놓는 등 통큰 투자가 이뤄지면서 프로야구의 '돈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니지'의 엔씨소프트 프로야구단 창단 선언

'창원시 연고' 의향서 KBO에 제출

온라인 게임 전문기업인 엔씨소프트가 프로야구 구단 창단 의향서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최근 KBO에 프로야구단 창단의향서를 제출하고 통합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9번째 구단 창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공식 발표했다.

엔씨소프트는 통합 창원시의 뜨거운 유치 열정, KBO의 강력한 신생구단 창단 의지와 야구팬들의 강한 열망, 엔씨소프트의 IT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더 즐겁게 만든다는 기업 목표가 어우러져 창원 지역과 우리나라 프로야구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택진(43·사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의 야구 사랑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구단 창단을 놓고 고심 하던 지난 가을,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를 직접 관전하고 야구장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한 뒤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씨소프트 이재성 홍보실장은 "작년 가을부터 야구단 창단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가 게임 회사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인데 이것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창단에 뛰어든 배경을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시장 조사는 물론 세계적인 게임업체 닌텐도사가 대주주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 역시 게임업체가 구단주인 일본프로야구 라쿠텐 골든 이글스 사례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은 "엔씨소프트 쪽에서 지난주 창단 의사를 밝혔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전 조사를 많이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3개 기업이 창원을 연고지로 새로운 구단을 창단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이 가운데 엔씨소프트가 물꼬를 튼 만큼 나머지 2개 기업도 곧 창단 의향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창단의향서를 접수했으니 이제 공은 내년 1월11일 열릴 KBO 이사회로 넘어갔다. 각 구단 대표들이 9구단 창단 필요성과 야구단 운영 주체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통합 창원시가 9구단 유치에 적극적이고 마산구장 개·보수는 물론 머지않은 장래에 신규 구장 건립도 책임지겠다는 뜻을 KBO에 전해왔다. 또 구장이 새로 지어지면 구장 운영권의 대부분을 야구단에 장기 위탁할 예정이어서 신생 구단은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구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구단 연고지로 주목받는 경남 지역은 1만7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보유한 옛 마산시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창단 여론이 일었던 프로야구 인기 지역이다.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합쳐진 인구 108만명 규모의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단 논의가 더욱 본격화됐다.

KBO와 창원시는 지난 10월26일 제9구단 창단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고 한 달 뒤에는 시민이 중심이 된 프로야구단 유치위원회도 출범했다. /연합뉴스

9구단 창단 선언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엔씨소프트는 1997년 3월 설립된 중견 기업이다. 1998년 9월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리니지 시리즈, 길드워, 아이온 등을 간판상품으로 키워냈다. 지난해 매출액은 6347억4200만원, 영업이익은 2338억600만원을 냈다.

김연아 세계선수권 준비 착착

안무가 윌슨 "많이 쉬었지만 새 환경 적응 잘해"

SI,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선수 10인에 선정

'피겨 퀸' 김연아(20·고려대)의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이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있는 김연아의 근황을 전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윌슨은 21일(한국시간) 캐나다 '글로브 앤드 메일'과 인터뷰에서 "김연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코치 피터 오피가드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윌슨은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웨스트 아이스 팰리스 링크에 둥지를 튼 김연아를 만나 새 프로그램을 함께 작업한 뒤 지난주 캐나다로 돌아왔다. 김연아는 안무가 윌슨과 작업을 통해 쇼트 프로그램인 '지젤'과 프리스케이팅 '오마주 투 코리아' 등을 마련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3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정식 대회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를 모두 건너 뛴 채 내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윌슨은 "김연아는 이처럼 한 해를 모두 건너 뛴 적이 없었다"라며 "(이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연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훈련을 잘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출신인 남나리(미국명 나오미 나리 남) 코치와 잘 지내고 있다"라며 "남 코치가 있다는 점이 김연아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 코치는 1999년 12월 전미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13살의 나이로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미셸 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미국 피겨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 김연아는 미국 스포츠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가 선정한 '201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선수 10인'에 뽑혔다. 김연아는 복싱 스타 매니 파퀴아오, 축구 스타 랜던 도노번 등과 함께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코리아 영건' 김비오·강성훈 내년 1월 소니오픈부터 PGA 출격

한국 국적 선수로는 최연소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출전권을 따낸 김비오(20·넥슨)가 강성훈(23·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내년 1월 소니오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에 나선다. 김비오는 22일 "1월 둘째주에 열리는 소니오픈 대회에 강성훈 선배와 함께 출전해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PGA투어 두 번째 대회인 소니오픈은 내년 1월13일부터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068야드)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올해 김비오는 8월 조니워커오픈에서 국내프로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며 첫 우승을 맛봤고, 시즌 내내 물오른 기량을 뽐내며 신인왕을 비롯해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발렌타인 대상, 최저타수상까지 휩쓸었다.

기세를 이어 이달 초 PGA 투어 퀄리파잉 스쿨에서는 공동 11위에 오르며 25위까지 주어지는 PGA 투어 출전권을 획득해 미국 무대 정벌을 꿈꾸고 있다. 강성훈도 공동 16위에 올라 PGA 투어 멤버가 됐다.

내년 PGA 투어에는 '탱크' 최경주(40)와 '호랑이 사냥꾼' 양용은(38),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에 이어 '젊은 피'가 가세해 한국 팬의 이목을 집중할 전망이다.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부정맥을 극복한 것으로도 알려진 김비오는 "생활하거나 경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신경쓰지 않고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나가겠다"며 "퀄리파잉스쿨을 하면서 정교함에서 다른 선수들에 뒤졌다고 느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일단은 투어 출전권을 지킬 수 있는 상금순위 125위권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겨울 눈꽃세상" "한라산등반" 大특가 (2011년 2월 24일 까지)
"올레길" 도 걷고 "오름" 도 보고, "한라산" 도 오르고, "관광열차" 도 타고~
배타고 갈 필요 있나요~! 왕복 항공으로 더욱 저렴하고 편안하게~!

상품1 올레길+한라산 등반
광주 왕복항공 1박2일 ₩99,000~
★ 출발일 : 12월 26 // 1월 9, 16, 23, 30일 ...★ 매회 8명이상 조건 // 기타 날짜 요금인상.

일 자	여행일정
1일	광주 집결 [출발 40분전-개인보딩/신분증지참] 광주출발(오전) - 제주도착 후 가이드 미팅 제주 오름테마공원 - 중식 - 올레길 체험(14코스) 호텔 도착 후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 한라산 등반 - 중식(도시락) - 농수산물 직매장 공항으로 이동 - 제주 출발 (오후) - 광주 도착

상품2 올레길+한라산등반+관광열차 여행
광주 왕복항공 2박3일 ₩139,000~
★ 출발일 : 12월 27, 28 // 1월 3, 4, 10, 11일, 17일, 18일, 24일, 25일...
★ 매회 8명이상 조건 // 기타 날짜 요금 인상.

일 자	여행일정
1일	광주 집결 [출발 40분전-개인보딩/신분증지참] 광주출발(오후) 제주도착 후 가이드 미팅 호텔 도착 후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한라산 등반 - 중식(도시락) 호텔도착 후 자유시간
3일	호텔 조식 후 ●선택관광(삼국지랜드 OR 코끼리쇼) ★제주에코랜드 생태 공원 열차 체험(50분) ★조랑말체험(단거리승마체험) - 중식 성읍민속마을 초가집 관람 ★일출랜드 제주출발(오후) 광주도착

※365일 제주도 항공권 확보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일반호텔(5~6인실), 차량, 일정내관광지요금, 식사(확인요망), 여행자보험
불포함 사항 기사/가이드팁(1인 10,000원) ●선택관광 ● 유가할증료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투어클럽&스피드골프 투어 062)382-8201